

“납본정상화 위해 납본센터 설립해야”

2005년 국립중앙도서관 열린정책세미나

‘출판계와 도서관계 공동발전 전담기구 설립’ 제안도



효율적인 납본업무를 위해선 별도의 납본전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판과 도서관, 그리고 서비스>라는 주제로 지난달 23일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김태근, 이하 중앙도서관)이 개최한 ‘열린정책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책임연구원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을 대신해 납본접수업무와 MARC(machine readable catalog : 컴퓨터 처리가 가능토록 한 출판물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고 있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박맹호, 이하 출협) 납본실의 납본업무를 합리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국도서(납본)센터’(가칭)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 개정 작업중인 도서관법에 납본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납본시스템은 중앙도서관과 출협 양쪽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는 중앙도서관이 납본업무를 대행기관에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납본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데다, 일부 출판사들은 출협을 통해 납본을 했을 경우 50퍼센트의 납본보상금을 출협이 부당하게 가져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신속·저렴한 비용의 납본기능 ‘출협이 유일’

하지만 백 책임연구원은 “출협측에서 특별회비로 받고 있는 납본보상금은 일종의 납본대행수수료로 납본접수와 MARC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원과 설비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며 “오히려 중앙도서관으로 납본한 도서는 다시 출협으로 옮겨와야 하기 때문에 날로 빠른 데이터 구축이 절실한 시점에서 이중의 시간과 비용이 들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납본을 받고 이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 곳

은 출협밖에 없으므로, 현재의 출협 납본실을 납본업무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한국도서(납본)센터’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 책임연구원은 또 납본율을 100퍼센트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ISBN 사업을 센터에 이관해 납본한 도서에 한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센터에서 등록된 정보를 모든 도서관과 서점에서 활용할 경우 각 서점과 도서관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판통계 자료로서도 가치가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본은 출판산업 발전과 출판사 마케팅의 핵심’

출판 전문가들은 “납본을 통해 집계되는 도서 통계는 출판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납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한다.

출협 김인기 과장은 “우선 출판행정 소관 부처에선 납본 도서를 기초자료로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입안 자료에 활용한다(실제로 납본지원금을 신청할 때 납본현황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며 “월별, 연도별 납본통계 작성 및 한국출판연감 제작의 자료로 이용되며, 출판산업의 귀중한 지표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납본도서 위주로 MARC 데이터를 구축, 전국의 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각 도서관에서 신간도서 구입에 이를 활용토록 한다. 출판사로서 간행물 발간 후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차원에서도 신속한 납본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재 출판통계의 실제적 자료는 출협에 납본된 도서를 바탕으로 만드는 <출판연감>이 유일한 실정. 그나마 국내 출간도서 가운데 적지않은 숫자가 납본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본 시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출판흐름을 읽는데 정확도가 떨어진다 는 지적이다.

박맹호 출협 회장, ‘신속 납본, 책 판매 확대에 도움’

한편 출판계와 도서관계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이날 세미나에서는 두 단체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기됐다. 출협 박맹호 회장은 축사(강희일 부회장 대독)에서 “출판사의 신속한 납본은 최단시간에 최신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책 판매 확대에



• 국립중앙도서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대립이나 소극적인 협력에서 벗어나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공동발전을 연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도 이와 같은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지식문화기반 강화를 위한 출판계와 도서관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한 대구대학교 윤희운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출판계와 도서관은 ‘지식정보를 통한 한국의 문화강국화’라는 명제를 공유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자폐성 이론, 책임전가, 그리고 이타심을 초월하는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며 “출판계가 도서관의 구매력만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도서관이 양질의 출판물을 수집함으로써 존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면, 도서관 인프라의 확충은 상리공생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서관 책구입, 입찰방식 대신 정가제’ 제안도

박찬익 바이정출판사 대표도 “양측의 공동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독서캠페인, 양서지원, 예산확충,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단체장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호출판사 장인용 대표는 현행 입찰방식 대신, 도서납품가를 정가제로 전환할 경우의 장점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장 대표는 “정가구입하면 도서구입량은 줄겠지만 수시구매를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며 “도서관으로서는 신간이 나오자마자 구매, 비치할 수 있어 도서관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정가구입을 장려하고, 정작 혈값으로 사들이는 것은 모순이란 얘기도. 이런 의미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모범적으로 도서납본의 보상비를 정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취재_신동섭기자 | 사진_박신우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납본 업무는…

2005년 3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은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를 MARC 데이터 구축사업의 공식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납본접수업무만을 대행해 오던 출협은 납본과 동시에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중앙도서관 역시 품이 많이 가는 MARC 데이터 입력작업에서 벗어남으로써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핵심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납본이란 출판사 및 제작사에서 도서 및 비도서 등을 발행했을 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도서관의 도서구입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출판통계작성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출판통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자리에서 모든 도서를 납본받는 중앙도서관과 납본업무를 대행하며 <출판연감>을 제작해 배포하는 출협으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현재 국내 납본은 출협을 통하는 3,000여 출판사와 한국잡지협회를 통하는 500여 출판사 등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150종이 납본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 국내 출판물추정치의 75퍼센트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납본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측에서 별도의 서지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한다는 점이었다.

출협 김인기 과장은 “납본접수대행과 MARC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일원화는 이러한 고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40년간 지속적인 납본대행을 수행해 온 노하우와 ‘출판업계의 대표단체’라는 장점을 살려 납본률 극대화 및 고품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